

문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

靑 “신남방 정책 적극 지지 견인”

경제협력 등 분야별 논의 진전 4강(淸) 수준 끌어올릴 계획도

청와대는 5일 라오스 국민 방문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목표했던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모두 완료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신남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8일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을 포함해 ▲필리핀(2017년 11월12일) ▲베트남(2018년3월22일) ▲싱가포르(2018년7월11일) ▲브루나이(2019년3월10일) ▲말레이시아(2019년 3월12일) ▲캄보디아(2019년3월14일)를 모두 방문하며 아세안 소속 회원국 7개국 방문을 모두 마쳤다. 나아가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지만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 순방도 지난해 7월 마쳤다.

이번 5박6일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됐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환영 인사와 악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보다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신남방외교에 더욱 속도를 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주 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조기 목표 완수와 관련해 "이는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신남방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에 아세안 10개국 모두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를 신뢰하고 장기 비전과 실질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보여줬다"며 경제협력, 양국 교류, 군사·안보 협력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진전됐다고 밝혔다.

주 보좌관은 미중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경제 불확실성에 맞서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통해 신남방 정책의 토대를 탄탄히 다진 만큼, 이제는 신남방외교를 4강(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도 또 하나의 성과로 꼽혔다. /뉴시스

김수홍 전 국회 사무차장, 내년 총선 출마 선언

“고향 익산갑 출마할 것”

김수홍 전 국회사무차장이 내년 4·15 총선 익산갑 출마표를 던졌다. 김 전 사무차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을 완료하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에서의 30년 공직생활을 강조한 김 전 사무차장은 "차관급인 국회 사무차장까지 거칠 수 있도록 도와준 전북도민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고향 익산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차장은 익산의 현안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각종 악취문제라고 진단한 뒤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악취에 대한 원인 파악이 절실하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에서의 경험과 인적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는 10



일부터 '시민 결의로, 100일간의 희망 대장정'을 시작으로 익산 농촌마을에서 시내까지 구석구석 달려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사무차장은 익산 상당 출신으로 이리고, 한국외대,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1990년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익산갑 선거구는 3선의 현역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정정희 전 의원(무소속), 고상진 데이터연구실장(대안정치연대), 전완수 변호사(민주당), 임석삼 전 김제폴리텍대 총장(한국당),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총선 출마’...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사임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취임 7개월여 만에 사임했다.

내년 4·15총선 출마결과 함께 이에 따른 추석연휴 관심하기에 본격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부지사는 5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최근 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생의 심각한 고민을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하고자 한다"며 "지난 수개월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사직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무부지사로서의 공과에 대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재생에너지, 군산형일자리 등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면서도 "군산조선소



사태와 서남권 해상풍력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부지사 자리를 떠나더라도 전북에 대한 애정과 노력으로 전북에 대한 협조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이 부지사의 사임을 내년 총선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 출마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 지역의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뉴시스

이낙연 총리, 조국 수사 관련 “檢, 정치하겠다고 덤비면 영역 넘어가”

‘민간인 신분 수사받아야’ 현직 검사 글에 “그 얘기 옳은가 많은 의문 있을 수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 것이다.

이 총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현직 검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퇴 촉구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그 검사의 얘기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무산될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국민에게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기자간담회를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달빛내륙철도 희망에서 현실로

순창 등 지자체 참석 | 오늘 국회에서 포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이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14개 경유지자세와 지역 국회의원 공동으로 6일 국회에서 개최돼 의지를 모으고 전문가들과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14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와 지역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주최하며,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참석한다.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은 이번이 3번째로, 그동안 10개 경유 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9년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게 하

는 등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국회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현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외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6개 광역자치단체로 협업체계가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 1400만명의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6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정 치권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공동건의함으로써 사업이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달빛내륙철도로 남부신경제권을 구축하면 지방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자체와 국회가 하나가 되어 사업이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원형 기자

도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북도의회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송성환(전주7) 의장과 김이재(전주4)·홍성임(민중평화당 비례대표)·이병철(전주5)·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김희수(전주6)·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은 전주서부시장에서 심성옥 상인회장과 민나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생선 등 추석 제수용품 구매와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 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아동보호 시설인 전북 좋은 이웃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쌀과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송성환 의장은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전통시장이 경기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품질 좋고 값도 저렴한 데다 인심까지 후한 전통시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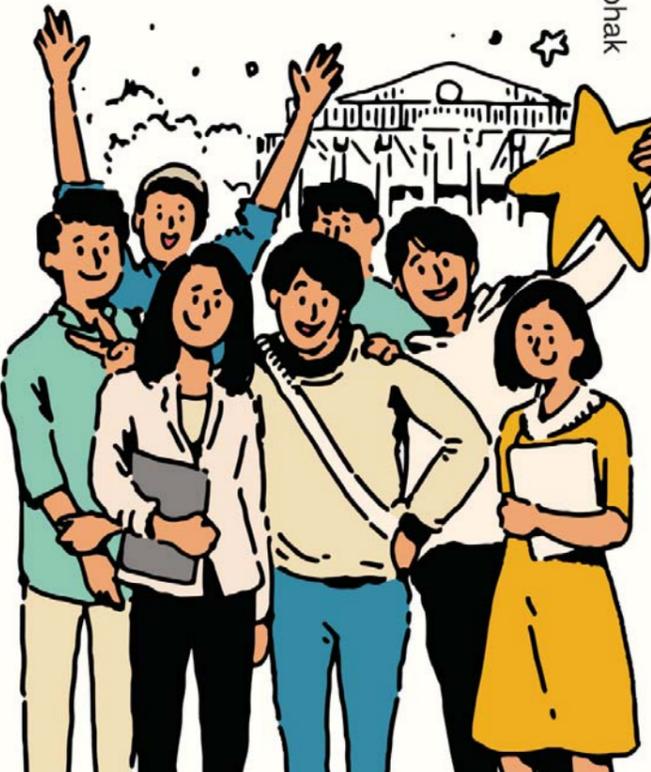


전주대학교

기회가 열린다. 배움을 누리다.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수시모집
2019. 9. 6.(금) 09:00 ~ 2019. 9. 10.(화) 18:00

www.jj.ac.kr/iphak



전주대학교 입학처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전주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팀
Tel 063-220-3233
Fax 063-220-3238
입학지원실
Tel 063-220-2700
Fax 063-220-2658